

### 전북대 RC 에코플로어 학생들이 채소·화훼 묘종 나눔

#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웠어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손수 재배한 5만 본의 채소 및 화훼 묘종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RC 에코플로어 학생들은 지난 17일 오후 대학본부 앞 뉴실크로드센터 앞에서 5만본의 묘종을 구성원 및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나눔 행사장에는 600여 명이 참여해 시작 전부터 20미터 이상의 긴 줄이 생길 정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

이 묘종은 전북대만의 모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레지덴셜칼리지’의 에코 플로어 활동 학생들이 그간 비교과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것.

학생들은 그간 식물자원을 통한 인성 교육과 건강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박병도 생명자원융합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양한 묘종을 재배해왔고, 성과를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공된 묘종은 고추와 가지, 비트, 신선초, 케인, 방울토마토,



전북대 RC 에코플로어 학생들은 지난 17일 오후 대학본부 앞 뉴실크로드센터 앞에서 5만본의 묘종을 구성원 및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적치커리, 참외 등의 채소와 함께 딸랑포도, 안젤로니아, 펜타스, 일일초, 만수국 등의 화훼 등이었다.

이날 묘종을 받아든 시민 양정자씨(중화산동)는 “전북대에서 시민들을 위해 묘종을 나눈다고 하여 찾았는

데, 학생들이 직접 길렀다는 것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직접 묘종을 재배한 레지덴셜 칼리지 학생들과 대학측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정운씨(생물환경화학학과 1년)는 “RC 에코플로어 활동을 통해 과중부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직접 기른 묘종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 전북대 법학연구소, 권력형 성범죄 문제 해결 학술대회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이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 바오로홀(2층)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대주제의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송기춘·신옥주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권력형 성범죄의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문의 상이 담긴 대학도 성범죄 논란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연구소는 “지역사회와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 ‘가즈아 서울로... 교과통합은 이렇게’ | 용진중, 과제탐구 현장 체험

용진중학교(교장 고승식)는 2018학년도 용진기행(龍進記幸) 프로젝트 중 2차 사업으로 교과통합 과제탐구 현장 체험학습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전교생이 3년에 한 번하는 현장체험 학습을 4~5명의 학생이 한 모듈, 총 17개의 모듈로 구성하여 모듈별 진로와 적성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실행·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순으로 진행한 이번 용진기행은 현장체험 학습이 단순한 놀이 중심이 아니라 교과통합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체험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실수업 및 체험학습, 진로탐색 등을 내실있게 운영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2번째 날 저녁은 서울에 연고 등 둔 용진중학교 재경동창회 선배들 중 (서울 현대병원 원장 등) 직업인들이 직접 숙소에서 찾아와 저녁식사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7개



의 전문직업인 선배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선배들의 모교 사랑과 후배들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용진기행 프로젝트 중 진로찾기 여행을 실행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관심을 갖고 했던 각종 체험(특강 포함)을 형식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소형 포켓북에 기록하도록 해 체험학습을 마친 후 수업 시간에 활용 및 발표회를 21일 벌였다.

이선진(3학년) 학생은 “지금까지

현장체험학습 그러면 주로 볼타운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팀을 짜고, 계획서와 체험 그리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힘은 들었지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과제를 주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용진기행(龍進記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김선경 연구부장은 “용진중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를 하면서 보다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또한 인성 바르고 능력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원광대, 7억1400만원 지원받아 입학사정관제 역량강화 지원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 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노력과 대입 전형의 공정성 제고 노력, 학교 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 기회 전형 운영, 대입 전형 운영 현황 및 여건,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원광대는 ‘입학사정관제 역량강화 지원 사업’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까지 8년 연속 같은 사업

에 선정됐으며, 올해 7억1,400만원의 지원비를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문영 입학관리처장은 “올해 사업 선정은 그동안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 확대와 함께 대입 전형 단순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른 기회 전형 운영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광대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입 전형 역량 강화를 비롯해 신입생 추수관리 등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익산교육지원청과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동안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에서 2018 지평선어울누리청소년영화캠프를 열었다.

### ‘제 장래희망은 영화감독이랍니다’

익산·김제교육지원청, 지평선어울누리청소년영화캠프

익산교육지원청과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18~19일(1박 2일)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에서 2018 지평선어울누리청소년영화캠프를 열었다. 이 행사는 18일 오전부터 진행되었는데, 원활한 자기표현을 위해 김주영 교사(남원국악고)가 몸짓을 통한 자기 표현 및 연기 방법을 지도했으며, 오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초단편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허윤희 외 7명의 강사가 영화의 콘티 작성, 촬영, 편집 요령을 지도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력 신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과 익산공공미디어센터(센터장 김성범)에서는 청소년의 가치와 영상미디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창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영화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19일에 익산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로 이동하여 시사회를 가졌다. 각 제작팀에서는 상영 전 제작 의도와 제작 과정에서의 소감을 발표하고, 이후 직접 만든 작품들을 관람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제작 지원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초단편영화제를 하반기에 열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